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호랑이에 물려갈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너무 빨리 변해가니 정신을 차리기 힘들게 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잘못되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오늘날 우리 농민(축산인)에게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적인 방법, 사회과학적인 방법 또는 종교적인 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빵은 손으로, 국물은 스푼으로, 반찬은 저범으로 먹어야지 국물을 저범으로 먹는다면 헛수고가 되고 만다.

최근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건강법이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통하는 건강법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사회환경, 문화적 차이, 개체 차이 등

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이번 KBS는 너무 쉽게 다루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만일 KBS가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제작하였다면 영양학자들의 반대 의견도 함께 보고하였을 터인데, 시청율에 초점을 두다 보니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

이상구 박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식생활을 다루지 않고 종교적 차원에서 식생활을 다룬 것은 실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위마에 있는 비만증 환자들에게는 채식이 필요하겠지만, 한국 국민이 모두 비만증 환자도 아닌데 채식을 강요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영양상태가 좋아져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노인문제가 오히려 사회문제가 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식생활 개선의 덕택이기 때문이다.

천지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였다는 문제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으면 되는 것을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원소들이 모여 물질이 생기고 이중 유기물질이 생명체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를 연구하여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하려고 노력한다면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이 된다.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도덕 관념으로 용납이 안되기 때문이지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 농림수산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축산법 개정안도 경제적 측면이 아닌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출돈육에 대한 반송품도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과연 이 고기를 먹어서 인체에 유해하나, 무해하냐를 논하게 되겠지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반송품을 소비자가 먹을 때 그들의 자존심을 상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로 집약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달라지는 것이다.

3월초에 정부가 발표할 농축산물의 수입예시도 양축가들로서는 실로 못마땅하기 한이 없다. 수입개방압력을 자꾸 말하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보느냐에 따라 대책은 달라진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아니고 무역 역조를 개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책은 우리가 수출선을 다변화 하든가, 아니면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아닌 공산품 수출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미국도 신발·섬유류에 대해 쿼터를 정해서 우리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농민만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농축산업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냐, 미국의 무역수지 역조의 폭을 줄이라는 요구를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해석해 버리는 일들은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잘못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월 13일 있었던 여의도에서는 농민대회도 하나의 폭력시위로 본다면, 주동자와 폭력을 휘두

른 자를 처벌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이고 농촌·농민문제의 폭발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축산업에서의 분노처리도 하나의 폐기물과 공해물질로 보느냐, 아니면 유기질 비료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 농림수산부내에서도 축산업을 과에 따라서 농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어렵고 막대한 대체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축산업을 농업의 범주에 넣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다.

배합사료 정책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의 시각에서 양축가를 위한 배합사료정책이나, 아니면 사료공장을 위한 배합사료정책이나의 시각을 바꾸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전환기를 맞이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무허가 축사문제도 법률적인 시각에서 보면 철거하여야 되지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양성화 하거나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법대로 처리한다면 문제는 문제를 만들고, 더욱 풀기 어려운 국면으로 만들어진다.

현대그룹의 정주영회장 북한 방문을 반공법으로 다루면 간단히 구속해서 재판에 회부하여 문제가 달라진다. 현재 얽히고 섞힌 축산문제가 안풀리고 있는 것은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영국의 D.리카르도는 비교우위론을, 독일의 F. 리스트는 보호무역주의 이론을 체계화 한 것도 시좌(視座)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근본적인 발상의 대전환 없이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할 따름이다. 3월 2일 농림수산부가 광범위하게 축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일과성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